

불법 현수막 3만5000개...재활용 한 건도 없다

광주YWCA 실태조사...5개 구, 모두 소각처리 '환경오염' 불러 종이 소재 타이백·광목현수막·PPT 화면 등 대체 노력 필요

광주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이 한달 평균 3만 5000여 개에 달하지만 단 한개도 재사용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수막은 약품 처리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만큼 모양을 바꿔 재사용하거나 아예 제작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YWCA는 5일 광주지역의 불법 현수막 개재 실태 조사(3주간)를 실시해 이같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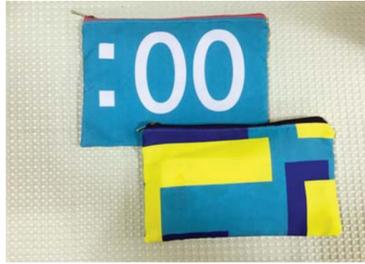
이번 실태조사는 넘쳐나는 불법현수막을 소각하는 대신 재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 단계로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

‘업사이클링 주민활동가 양성교육’도 마련됐다.

실태조사는 광주 5개 자치구 각 6개의 동을 지정해 15명의 활동가들이 2차례(1차 7월 말, 2차 8월 중순)에 걸쳐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합법적인 현수막은 제외하고 불법현수막만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5개 자치구의 불법 현수막 담당자와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6개 표본 동에 대한 조사 결과 동구에서 73개, 서구 58개, 남구 64개, 북구 52개, 광산구 62개 등 총 309개가 적발됐다. 광주 30개 동에서만 한달 평균 4650개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고 있는 꼴이다.

5개 자치구 담당자에 따르면 한달 평균 적발되는



광주YWCA가 폐현수막으로 만든 파우치.

불법 현수막은 서구가 1만 5000개로 가장 많고 남구 9000개, 북구 6000개, 광산구 3000개, 동구 1200개 순이다.

한달 평균 3만 4200개의 현수막이 광주도심에 불법으로 걸리는 셈이고, 연간 41만여 개가 넘는

현수막이 광주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YWCA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열린 ‘업사이클링 주민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모텔 구축’ 간담회에서는 불법현수막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폐현수막을 재사용하는 업체를 지역에 유치해 환경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자원을 다시 활용하자는 제안이 다수였다.

김세화 YWCA 간사는 “현수막은 우리 현장에서 넘쳐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사례가 너무 많다”면서 “찌지 않는 플라스틱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수막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현수막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종이소재 타이백이나 광목현수막, PPT화면, 광고스크린 등으로 대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YWCA는 폐 현수막으로 제작한 방채취용 앞치마(50개)와 에코백(20개)을 광양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경력 신입법관 4명 배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4명이 일반 법조경력 법관에 새로 임명됐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2020년 신입법관 임명식에서 4명의 신입법관을 배출했다.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으로 신입 법관에 임명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김대현 변호사, 민양이 변호사, 박건훈 변호사, 박주 변호사이다.

전국에서 임용된 신입법관은 모두 155명으로 이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57명(37%)이다.

전남대는 서울대, 성균관대, 부산대에 이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4번째로 많은 법관을 배출했다. 앞서 전남대는 지난 2015년 4명, 2016년 2명의 법관을 배출한 바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도서관 새 단장에
책이 더 잘 읽혀요

5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광주시 동구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의 '계림꿈나무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코로나 수능’ 부정 행위자 안되려면

신분 확인 때 마스크 내리기·선택과목 해당 문제지만 보기 등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시험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감독관들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 책상 앞면에 설치한 칸막이를 매 교시 검사한다.

교육부는 5일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 칸막이도 설치돼 수험생들로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더 늘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안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답을 다른 과목 답안에 잘못 기재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안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8시간 전일제 도입 등 요구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의 하루 파업이 예고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 3300여 명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교실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돌봄 민영화 중단, 돌봄 전담사 8시간 전일제 도입(시간제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 당국과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광주·전남에서도 초등학교 578곳에서 돌봄 전

돌봄교사 오늘 총파업 예고

담사 43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돌봄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맞벌이 등 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 교육청은 파업 당일 정상적인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정 돌봄과 지역연계 돌봄 시설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원인인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하는 돌봄 전담사 측과 찬성하는 일부 교원단체, 학부모 측이 의견을 좁

히지 못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교육감들은 파업 참여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불편을 겪게 된 맞벌이 등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속히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등생 아이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 당국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의 위기에 놓였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이다”이라며 근본 대책을 호소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외국인 유학생 5·18 한국어 말하기 대회

광주 북구, 7~8일 전일빌딩 245

광주시 북구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5·18의 세계화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5일 북구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5·18 민주화운동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7~8일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10월 전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여개국 출신의 30여

명을 선발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유학생들이 알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이후 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둘째 날에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전남대 정문 등 5·18 사적지 탐방과 민주화운동 특강 등 5·18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인 북구정장은 “이번 말하기 대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 605-1115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성경연구학과(Th.M.)	6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원서접수: 2020. 11. 17(화) ~ 25(수)
·전형일: 2020. 11. 30(월) 오후 2시 30분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전형일: 2020. 12. 11(금)/12(토)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